학식 적자 보전 약속했지만… 학교, 정산 방식 변경 제안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생협이 운영하는 국제캠 학생회관 식당의 적자 보전 방식에 대해, 학교 측이 3년간의 손익 합산 정산 방식을 제안했다. (사진=대학주보 DB)

【국제】 생협이 운영하는 국제캠 학생회관 식당의 적자 보전 방식에 대해, 학교 측이 3년간의 손익 합산 정산 방식을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은 지난달 21일 '2026학년도 학생회관 식당 운영위원회 3차 회의'에서 전달된 것으로 애초 합의는 분기별 정산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생협은 지난해부터 국제캠 학생회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약 5,9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국제캠은 수익성이 낮은 식당 한 곳만 운영해 이를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어렵다. 반면 서울캠 생협은 식당보다 수익성이 높은 편의점, 카페 등을 함께 운영하기에 적자를 메울 수 있었다.

이에 학교와 국제캠 생협은 식당 운영을 시작하기에 앞서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맺고, 적자가 발생하면 연간 당기순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생협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보전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발생한 적자에 대한 보전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현재 적자는 서울캠 생협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지난해 적자는 높은 원가율과 개점 초기 비용의 영향이 컸다. 국제캠 식당은 자율배식으로 1인당 제공량이 많아 원가율이 서울캠 청운관 식당보다 8.3%p 높았다. 개점 첫해 식판, 뚝배기 등 식기를 대량으로 구입한 비용도 적자에 반영됐다.

학교는 정확한 손실액과 보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4월 교내 회계 담당 교직원을 검토위원으로 위촉했다. 김동주 총무팀장은 "회계 장부에서 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생협 측에서 주장한 적자 금액의 대부분이 납득 가능했다"고 말했다. 다만 여러 해 사용하는 식기를 한 해 소모품비로 처리한 점과 출장비 등 일부 항목의 기준이 학교와 다른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교가 3년간의 손익을 합산해 정산하자고 제안한 데는 올해 실적 상승이 주요했다. 생협은 올해 약 4,400만 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계약 첫해 적자를 이후 수익으로 메워 계약 갱신 시점인 내년 말에는 3년간의 누적 손익이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생협 측은 보전 방식 변경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생협 고인환 이사장은 "국제캠 식당 운영을 맡을 당시에도 수익성 문제로 이사회 내 반대가 있었다"라며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마저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사회를 설득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생협은 11월 중 이사회를 열고 해당 방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생협 김민화 사무국장은 "부속합의서의 운영보조금 조항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방안도 향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운영위원회는 오는 12월 9일 열린다.

축구부 후반기 막판 3연패…U-리그 왕중왕전 진출 실패

김민지 기자 kmjzhongwen@khu.ac.kr



축구부가 한양대전에서 패배하며 U-리그 왕중왕전 진출에 실패했다. (사진=차 선수 제공)

【국제】 축구부가 지난달 29일 한양대학교 ERICA 대운동장에서 열린 '2026 KUSF 대학축구 U-리그' 한양대전에서 1-2로 패했다. 이로써 축구부는 U-리그 제 3권역에서 4승 2무 4패로 승점 14점을 기록하며 최종 4위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왕중왕전 진출권이 주어지는 3위 이내에 들지 못한 결과다.

축구부는 U리그 마지막 3경기에서 연달아 패하며 순위 경쟁에서 밀려났다. 지난달 2일 명지대전에서 1-2로 패한 데 이어 9일 아주대전에서도 1-3으로 졌다.

마지막 한양대전에서는 후반 33분 선제 실점한 뒤 후반 39분 정주형(스포츠지도학 2025) 선수의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지만, 후반 44분 결승골을 허용하며 3연패로 시즌을 마쳤다.

축구부는 지난 2월 '제62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과 지난달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각각 준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U리그에서는 시즌 막판 연패를 끊지 못하며 왕중왕전 진출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주장 차승재(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는 "더 좋은 시즌을 보내고 싶었는데 마지막 3경기가 아쉽고 생각이 많이 난다"며 "축구부에 있으면서 왕중왕전을 나간 적이 없어 이번 기회에는 꼭 나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민서(스포츠지도학 2025) 선수 역시 "전반기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왕중왕전 진출에 대한 기대가 컸다"며 "경기력은 좋았어도 결과적으로 진 경기들이 많은 것 같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광진 감독은 선수단의 부족한 인원과 체력 부담을 시즌 운영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김 감독은 "전국체전 결승전을 치른 뒤 선수들의 체력 부담과 부상 등이 겹치면서 한양대전 당시 13명의 선수로 경기에 나서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감독은 "시즌 초반 상대팀에 비해 경기력이 부족했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향상됐다"며 "우리 학교 특유의 조직력과 팀워크, 패싱 플레이를 바탕으로 경기력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 내용이 좋아졌음에도 이를 승리로 연결하지 못한 경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즌을 돌아보며 차 선수는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선수단의 태도가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김 감독 역시 "적은 인원으로 경기를 치렀음에도 선수들이 투혼을 발휘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다음 시즌 보완할 과제로 차 선수는 미드필더와 수비라인 간 원활한 소통을, 박 선수는 기복 없는 경기력 유지를 꼽았다. 김 감독은 "선수단 규모가 줄면서 체력 부담과 부상 위험이 커지고 있어 선수 영입이 필요하다"며 "전술적 완성도를 높여 다음 시즌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